

조국,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 발의 천명

“검찰 독재 황태자’도 평범한 사람과 같아야” 이재명 대신 ‘정권 심판론’ 이슈 이끌어 주목 비례 총 101명 신청...국민참여선거투표로 결정

22대 총선을 앞두고 ‘돌풍’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특별검사)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은) 여러 범죄 의혹에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의 황태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평범한 사람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만드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4·10 총선을 불과 한 달도 채 안 남긴 상태에서 불고 있는 조국혁신당 바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들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 이슈를 조국 대표가 이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조국혁신당이 제시하는 특검법 이름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말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조 대표는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수사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검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정적 2개월 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가 패소하고 상고를 포기한 것이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가 아닌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아울러 “한 위원장 말 논문 대필 의혹까지 특검으로 수사하겠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총선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해서, 검사 출신 집권 여당 대표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선택적 수

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나서서 관련선거를 일삼고 끊임없이 야당 대표의 먼

지를 떠는 일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4·10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겠다고 신청한 상태다.

조 대표는 자녀 임시 비리와 청와대 검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된다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조 대표는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기자 질문에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나 그 순간까지, 나는 지구가 내일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일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모집에 총 101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추천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남녀 각각 10명씩 총 20명의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후보자들은 16일 오후 공개 정견 발표를 한다. 이들 후보자의 비례대표 순번은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로 결정된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14-16일 선거인단을 모집하며 17-18일 이틀간 순위 선정을 위한 인터넷 투표가 진행된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선거인단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진수기자

민주, 4·10 총선 선대위 공식 출범

선대위 '3톱' 이재명·이해찬·김부겸 참석

더불어민주당 4·10 총선 전략을 진두지휘할 선거대책위원회가 1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3톱’ 상임선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공동선대위원장은 모두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를 입고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닌, 국민과 국민의힘의 대결”이라며 “나라를 망치고도 반성 없는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위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국민이 승리하는 길에 유용한 도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역사의 갈림길마다 바른 선택을 해왔던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는다”며 “심판의 날에 국민들은 떨치고 일어나 나라의 주인은 영부인도, 천공도 아닌 국민이라는 점을 용산이 깨닫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총선은 내가 지금까지 치러본 선거 중 가장 중요한 선

거”라며 “현실정치를 떠났지만 이번 선거만큼은 절대로 놓쳐선 안 되겠다. 절실한 심정이 들어 선대위에 합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꼭 심판을 잘해서 국민의 고통을 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하고, 절실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다”고 힘줘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우리가 심판론을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겠느냐는 안일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면 안된다”며 “역대 선거를 보면 지나치게 자극하거나 반감을 불러일으켜 선거 전체를 망치는 경우가 있다. 후보들은 자기 영혼을 갈아 넣어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천을 받은 분들은 공천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을 잘 위로하고 그분들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기 바란다”며 “과거 우리 선배들은 바로 그러한 에너지를 함께

모았고 그래서 오늘의 민주당이 있다. 모두 한 팀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 전 대표와 출범식 후 별도 기자회견에서 공천 갈등과 관련한 질문을 받아 “이미 그것은 다 지나간 하나의 과정”이라며 “다행히도 최근 경선에서 진 분들이 흔쾌히 전체 선거에 동참하겠다는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어서 새로운 분열적 요소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가 당내 공천 파동은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당의 책임자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합했느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다고 말씀드릴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당원들이 (공천 과정에) 크게 실망한 것도 사실이다”며 “그분들의 에너지가 지금 조국혁신당 쪽으로 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비례정당도 일정 부분의 지지가 나와야 선거 전체 국면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는 회초리”라고 덧붙였다. /김진수기자

민주,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 20명 추천

당선 가능성 큰 1-20번 남녀 5명씩 10명, 21-30번 10명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범여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공동대표,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강유정 영화평론가,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등이 들어갔다.

1그룹 여성 몫으로는 초등교사노동조합 출신인 민주당 영입인재 백승아 공동대표,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강유정 영화평론가,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등이 들어갔다.

1그룹 남성 후보로는 위성락 전 대사, 임광현 전 국제청 차장(영입 인재), 박홍배 한국노총 금융노동위원회, 정을호 전 민주당 총무국장,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영입 인재)이 추천됐다.

2그룹 여성 몫으로는 초등교사노동조합 출신인 민주당 영입인재 백승아 공동대표,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강유정 영화평론가,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등이 들어갔다.

1그룹 남성 후보로는 위성락 전 대사, 임광현 전 국제청 차장(영입 인재), 박홍배 한국노총 금융노동위원회, 정을호 전 민주당 총무국장,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영입 인재)이 추천됐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추천한 대로 비례대표 순번이 주어지느냐고 묻자 “그럴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종 판단은 더불어민주당연합이 한다”고 답했다.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21-30번 2그룹에는 코미디언 서승만씨, 조원희 민주당 경북도당 농어민위원장, 서재민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곽은미 민주당 국제국장, 백혜숙 예코실업 대표,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객원교수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연합은 비례대표 후보 순번 1-20번에 민주당 추천 10명, 진보당 추천 3명, 새진보연합 추천 3명, 시민사회 추천 4명을 배치하고, 21-30번 후보로 민주당 추천 2그룹 10명을 등록할 계획이다. /김진수기자

전지예, 野비례정당 후보 사의 표명

야권 연합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의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됐다. 반미 단체 출신임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이 12일 후보직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정치시민회의’ 측 관계자는 이

날 “전 위원이 본인으로 말미암아 연합 정치의 정신이 훼손된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사퇴 의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낸 전 위원은 ‘겨레하나’ 활동가 출신이다. 겨레하나의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 등을 한 반미 단체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은 전 위원 외에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반대 시위를 주도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출신인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이에 따라 4명의 시민사회 몫 후보들을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연합에 추천할지, 후보를 변경할지는 논의할 계획이다. /김진수기자

53년 기술력의 집합체

우라칸 SH-100 출시!
우라칸 SH-200 출시!

(사)대한파크골프협회 1호 인증업체 썬아이엔디 와 파크골프채 수제작 전문 기업 에스유엔을 보유한 브랜드

썬파크골프



우라칸 SH-100

NEW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우라칸 SH-2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블리스 GOLD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마스터즈 CH-15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스파이럴 숫자 특허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마스터즈 CH-20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3K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스파이럴 가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영무SP sports 문의: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